



학생 프로필

이름
아이리스 저우

국적
중국

프로그램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ECE) (레벨 7)

학업 연도
2025

캠퍼스
NZTC 온라인



IRIS'S STORY

NZTC 학생 성공 스토리

배경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스라고 해요. 저는 16살 때 뉴질랜드에 와서 이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마쳤어요.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유아교육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NZTC를 선택한 이유

유아교육 과정을 찾던 중, NZTC가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이론과 실습이 잘 균형 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은 교사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보다는 실제 경험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어서, 실습 시간이 충분하고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NZTC가 제가 찾던 곳이었어요.

학습 경험

Graduate Diploma 과정은 총 1년 3개월 동안 진행돼요. 저는 총 9과목과 4번의 실습을 해냈고, 수업은 이론과 실습이 밀도 있게 구성돼 있었어요. 에세이 작성, 하루 종일 실습, 그리고 매주 16시간의 센터 근무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은 있었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실습과 홈 센터

공부하는 동안 저는 Little People과 Takapuna Kids 두 곳의 홈 센터에서 실습했어요. 원래는 한 곳에서 계속 실습할 예정이었는데, 지도교사 선생님이 휴가를 가시게 되면서 센터를 옮기게 됐어요. 두 센터는 교육 철학도, 가르치는 스타일도 서로 달랐는데요, 덕분에 다양한 관점에서 유아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배운 것들이 모두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도전과 격려

처음엔 에세이 작성이 정말 어려웠고, 실제로 두 과목에서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강사님과 지도교사, 방문교사 선생님들이 “넌 좋은 교사야”라고 응원해주셨고, 그 말들이 큰 힘이 되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NZTC에서는 홈 센터 찾거나 인터뷰 준비 같은 실질적인 부분도 잘 안내해줘서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수업 준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교구를 만드는 일이에요. 제가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티슈 상자에 동물 피규어를 넣어 ‘숲 상자’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죠! 동요를 부르며 상자에서 동물을 하나씩 꺼내는 활동을 했어요. 놀이처럼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교육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학생에서 유아교사로

학생 보조교사일 때와 등록 유아교사(Registered Teacher)로 일할 때는 정말 많이 달라요. 학생일 때는 정해진 루틴에 따르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주된 업무였다면, 정규 교사는 동료들과 협력하고, 학부모와 소통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잘 챙겨야 해요. 확실히 큰 변화였지만, 그만큼 보람도 커요.

실습의 중요성

처음 실습을 시작했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하지만 1년 동안 꾸준히 실습을 해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실습을 통해 배운 것들은 교과서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New Zealand
Tertiary College



홈 센터 찾기

홈 센터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제가 살던 지역에는 유아교육 기관도 적고, 실습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NZTC에서 알려준 가이드를 따라 잘 준비해서 결국 실습할 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 끈기 있게 도전하는 법과 스스로 관리하는 힘을 배울 수 있었어요.

비자 계획

아직은 학생비자 상태지만, 졸업 후에는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를 신청할 예정이에요. 이미 구직 활동도 시작했고요. 취업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언젠가 가족도 뉴질랜드로 함께 데려오는 게 제 큰 목표예요.

나의 꿈

제 꿈은 단순해요.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감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그저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가끔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늘 웃게 돼요.

끝으로

좋은 홈 센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은 아름답지만, 체력적으로 꽤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는 게 꼭 필요해요.

이 일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힘들 때도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강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넌 좋은 교사야”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고, 지금은 저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IRIS IS SHAPING HER FUTURE.

To shape yours, enrol with UP Education, New Zealand.

POWERED BY UP EDUCATION